

종합·해설

朴-李 ‘여론조사’ 공방 점입가경

(근혜) (명박)

한 ‘중심모임’, “유효투표율 20% 반영” 朴 주장 지지

이명박 “당헌·당규 개정특위서 결정 내려야” 불만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의 여론조사 반영 방식을 둘러싸고 박근혜 전 대표가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에 판정승을 거두고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그러나 여론조사 반영 방식과 관련, 양측이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여론조사 방식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7일 경선에서의 중립을 표방하며 발족된 한나라당 의원 모임인 ‘당이 중심되는 모임’은 “여론조사 반영 방식과 관련, ‘관계대표 측의 투표수의 20%를 기준으로 삼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중심모임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헌에 규정된 당원과 국민참여 비율 5대 5는 경선에 ‘참여할 기회’를 의미하지 ‘결과’를 비례대로 반영하지는 뜻이 아니다”라며 “4만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자는 것은 대의원, 국민선거인단도 애초 정해진 인원 4만명과 6만명 모두를 투표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논리와 같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당헌·당규 개정 소위에서 후보 대리인들이 참여해 경선방식과 관련, ‘관계대표 측의 투표수의 20%를 기준으로 삼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표는 “여론조사를 할 때는 전체 선거인단 20만명의 20%를 차지하는 여론조사 반영 방식을 주장한 박 전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4만명을 여론조사 반영 기준으로 주장했던 이 전 시장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전 시장의 측근인 정두언 의원은 “중심모임이 중립적으로 절충하는 역할을 해야지, 어느 한쪽을 노골적으로 편드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당헌·당규 개정특위에서 빨리 결정 내려야 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 전 시장 측은 “여론조사 반영 방식은 경선위나 최고위원회에서 확정된 바 없고 당헌·당규 개정소위에서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그 의미를 축소했다.

이에 반해 박 전 대표 측은 “당헌·당규 개정 특위의 캠프 대리인인 김재원 의원은 “중심모임의 입장은 당내 전반적 분위기가 지극히 타당한 이야기”라며 “경선위와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안까지 뒤집으면서 억지 논리를 전파하고 당 사무처가 정확히 기록한 문서까지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개탄스런 행태가 문제”라고 이 전 시장 측을 겨냥했다.

박 전 대표 핵심 측근인 유승민 의원은 “당의 중심모임이 중심을 잡아줘 천만다행”이라며 “(이를 계기로) 더 이상 이 문제를 놓고 알가알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이제부터 박 전 대표와 이 전 시장이 경선 틀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충돌극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FTA 협상 논의하는 우리당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왼쪽에서 두번째)과 송영길 사무총장(왼쪽에서 첫번째)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FTA 특별위원회에서 협상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희정 ‘정상회담’ 추진했나

작년 10월 北 당국자와 회동 확인... 정치권 이슈로

FTA 협상 논의하는 우리당

안희정 ‘정상회담’ 추진했나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안희정 씨가 지난해 10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북한 당국자를 만난 사실이 확인되면서 남북 관계를 둘러싼 '안희정 케네디'가 정치권의 핫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그동안 어떠한 대북 접촉을 하지면서 통일부에 접촉 신청도 하지 않는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부과가 예상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안희정 씨가 “안씨가 ‘이해한 전 총리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안희정 씨는 대북 사업가인 권오중씨의 비방록이 언론에 노출되자 지난 26일 ‘지난해 10월 20일 베이징에서 북한 리호남과’도 말했다. 김 의원이 박근혜 전 대표와 가깝다는 점에서 그가 주목 대상 후보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을 겨냥한 것이라는 게 당내 대체 분석이다. /복지기자 jkpark@kwangju.co.kr

그런데 안희정 씨는 “안희정 씨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안희정 씨는 대북 사업가인 권오중씨의 비방록이 언론에 노출되자 지난 26일 ‘지난해 10월 20일 베이징에서 북한 리호남과’도 말했다. 김 의원이 박근혜 전 대표와 가깝다는 점에서 그가 주목 대상 후보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을 겨냥한 것이라는 게 당내 대체 분석이다. /복지기자 jkpark@kwangju.co.kr

안희정 씨는 “안씨가 ‘이해한 전 총리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안희정 씨는 대북 사업가인 권오중씨의 비방록이 언론에 노출되자 지난 26일 ‘지난해 10월 20일 베이징에서 북한 리호남과’도 말했다. 김 의원이 박근혜 전 대표와 가깝다는 점에서 그가 주목 대상 후보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을 겨냥한 것이라는 게 당내 대체 분석이다. /복지기자 jkpark@kwangju.co.kr

안희정 씨는 “안씨가 ‘이해한 전 총리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안희정 씨는 대북 사업가인 권오중씨의 비방록이 언론에 노출되자 지난 26일 ‘지난해 10월 20일 베이징에서 북한 리호남과’도 말했다. 김 의원이 박근혜 전 대표와 가깝다는 점에서 그가 주목 대상 후보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을 겨냥한 것이라는 게 당내 대체 분석이다. /복지기자 jkpark@kwangju.co.kr

정부를 맹비난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강성만씨 출마 공식 선언

한나라 무안·신안 후보로

4·25 무안·신안 국회의원 보궐선거 한나라당 후보로 확정된 강성만(46)씨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강씨는 이날 전남 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열린 회견에서 “이번 선거에서는 정치권이 아닌 일꾼을 뽑아야 한다”며 “대통령을 배출하고도 가장 못사는 우리의 경제적인 꼴을 풀어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평양당의 배려에도 요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27일 정부와 여권이 극비리에 대선용 남북정상 회담을 추진해온 물증이 드러났으며

쿠웨이트 방문 盧대통령, 허종 北대사 만나

“김정일에 진심 전해 달라”

대북정책 적극 추진 의지 표명

쿠웨이트를 국빈 방문중인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한국시간 27일 새벽) 사바 알 아흐메드 쿠웨이트 국왕이 주최한 국빈만찬 시작 전 아시아지역 대사들의 인사를 받는 차레에서 허종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를 만나 “가시게 된 전해주세요. 진심으로 한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앞서 노 대통령은 허 대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자 “반갑습니다”라며 왼손으로 허 대사의 오른팔을 감싸듯 잡은 채 악수를 했다.

노 대통령은 매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면서 낮은 목소리로 “진심으로 한다”고 말하자, 허 대사는 노 대통령의 두 손을 잡은 채 “감사합니다. 성과를 바랍니다”고 말하고 자리를 떴다.

청와대 대변인은 윤승용 홍보수석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진심으로 한다고 전해달라”는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리가 진심으로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에 전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이어 “노 대통령은 허 대사가 만찬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만찬 시작 1시간 전쯤에 알았다”며 “허 대

사가 만찬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 경제인들이 봤고, 이는 만찬 전에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통상 국빈만찬에는 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사절을 초청하는 것이 관례이며, 노 대통령은 2005년 9월 멕시코로 한다고 전해달라”는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리가 진심으로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에 전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이어 “노 대통령은 허 대사가 만찬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만찬 시작 1시간 전쯤에 알았다”며 “허 대

“친북 정책 특정주자 주도”

한나라 김용갑 의원 주장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이 27일 당의 대북정책 기초 전환 움직임과 관련, “특정 대선주자 측이 친북과좌정책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당내 대표적 강경보수파인 김 의원은 이날 개인명칭을 통해 “한나라당이 하루 아침에 김정일을 존중하고 햇볕정책을 지지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조기환수를 인정하는 등 친북정책으로 돌아서겠다고 한다”면서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과 좌파세력의 흉위병 역할까지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박근혜 전 대표와 가깝다는 점에서 그가 주목 대상 후보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을 겨냥한 것이라는 게 당내 대체 분석이다. /복지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당은 27일 “친미도 하고 친북도 해야 한다”, “진심을 전해 달라”고 한 노 대통령의 전날 “중동 발원”에 대해 “친북이 아니라 ‘중북(從北)’을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복지기자 jkpark@kwangju.co.kr

동구 번째빌딩/타운 입주업체 모집공고

한신인 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구에서 운영하는 동구벤처빌딩(5층)의 신규 입주업체를 다량으로 모집 중입니다. 관심 있는 업체는 문의하십시오.

- 모집대상**
 - 동구공공 및 입주사
 - 2007.3.12(수) ~ 2007.4.03(수), 22(수)
 - 입주회사: 2007.4.06(수) ~ 4.11(수), 6(수)
 - 입주회사: 2007.5.01(수) (변경될 수 있음)
- 모집분야**
 - IT/정보통신 (인터넷 9개분야, 모바일 5개분야)
 - 창업지원: 예비 창업자 및 창업자로서 정보통신, 영상 디자인 및 기술개발 연구개발 업체로 일꾼 수준의 대안이 있는 업체
 - 입주기간: 입주후 ~ 2008.3.31
 - 임대료: 동구벤처빌딩 입주사 9명에서 선정
 - 계약기간: 3년 (1년차 10%, 2년차 10%, 3년차 10% (월지급))
 - 계약보증금: 10% (www.donggu.go.kr)
 - 공고일: 3월 27일
 - 문의/문의: 동구벤처빌딩(062-2581) 2007년 3월 27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금채내상가매

- 신인동 6차선 대도면(분할가능)
 - 1층: 22평 (미용실, 차건 등)
 - 2층: 50평 (교회, 학원 등)
- 진월동 437세대(학교근접)
 - 1층: 14평 (미용실, 차건 등)
 - 2층: 30평 (학원, 눈술 등)
- 임동 (대단지)
 - 1층: 11평 (미용실 등)
 - 2층: 40평 (부서, 병맛, 차건 등)

*주인 직거래

T.062-512-2788
010-9006-1457

농산물저장고채

● 영인동 신복면 길목리38-89 (신복농공단지내저장고)

● 대 지: 3,197㎡

● 건 평: 1,956㎡ 기계2식

● 사 건: 04년경2880㎡목포지

● 입찰일: 4월2일(월요일)

● 면적: 1,234,478,750원

● 입찰가: 283,160,000원

● 동광호저축은행관리팀

T.0511249-6161.010-512-1901

자 산 지 부		부 채 와 자 본 지 부	
계 정 과 목	금 액	계 정 과 목	금 액
I. 유 동 자 산	62,572,889,675	I. 유 동 부 채	17,118,180,671
(1) 현금 및 현금자산	52,623,644,265	1. 매 입 채 무	7,055,275,229
1. 현금 및 현금자산	7,750,532,925	2. 단기 차 입	4,974,033,960
2. 단기 금융상품	916,872,357	3. 미 지 급	2,815,097,147
3. 매 도 가 능 증 권	14,482,021,521	4. 선 수	1,029,049,772
4. 대 손 증 당	23,830,850,855	5. 예 수	174,163,946
5. 대 손 증 당	▲496,537,754	6. 미 지 급 비 용	1,050,905,517
6. 대 손 증 당	3,550,000,000	7. 유 동 성 장 기 부 채	19,655,100
7. 대 손 증 당	1,496,590,435	II. 고 정 부 채	33,375,332,936
8. 대 손 증 당	▲11,205,249	1. 사	20,000,000,000
9. 대 손 증 당	315,791,636	사 례 인 발 행 차	▲52,068,608
10. 선 수	216,378,122	2. 장 기 차 입	317,630,700
11. 선 수	298,733,180	3. 특 약 보 중	720,000,000
12. 미 수	97,436,310	4. 예 수 보 중	4,518,797,000
13. 대 손 증 당	176,379,927	5. 회 계 차 이	8,065,397,898
(2) 고 지	9,949,345,410	6. 회 계 차 이	▲153,363,300
1. 반 계	2,371,480,429	회 계 차 이	▲4,190,231,135
2. 제 정	550,994,074	회 계 차 이	4,149,097,281
3. 환	5,053,586,647	부 채 총 계	50,493,513,607
4. 미	941,550,665		
5. 지	1,031,753,595		
II. 고 정 자 산	101,805,800,871		
(1) 무 가	29,952,145,500	I. 자	19,789,030,000
1. 무 가	3,000,000	1. 보	19,789,030,000
2. 매 도 가 능 증 권	3,302,446	II. 자	30,896,835,776
3. 지 분	23,047,905,053	1. 지	14,820,289,074
4. 보	1,754,633,920	2. 장	7,255,675,000
5. 대 손 증 당	▲17,546,338	3. 세	8,472,174,686
6. 대 손 증 당	5,160,850,379	4. 처	348,697,016
7. 장 기	71,479,086,810	III. 이	67,668,951,203
1. 로	27,215,911,880	1. 이	4,497,066,000
2. 권	33,597,967,890	2. 기	116,578,733
3. 가	19,466,018,837	3. 세	14,348,100,000
4. 가	▲7,401,135,723	4. 처	48,707,206,470
5. 가	67,579,489,322	(당기순이익)	214,870,711
6. 가	▲62,494,649,701	IV. 자	▲4,469,540,240
7. 가	2,473,654,526	1. 자	▲4,376,725,311
8. 가	▲2,259,805,524	2. 매	▲84,537,951
9. 가	4,856,926,598	3. 부	▲8,276,978
10. 가	▲4,327,796,729		
11. 가	3,675,925,688	자	113,885,276,739
12. 가	374,589,361		
13. 가	374,589,361		
자 산 총 계	164,378,790,346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64,378,790,346

(第16期) 決算公告

貸借對照表

(2006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원)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I. 유 동 자 산	7,593,234,107	I. 유 동 부 채	39,508,467,848
(1) 현금 및 현금자산	7,262,882,085	1. 매 입 채 무	14,246,934,141
1. 현금 및 현금자산	4,064,800,283	2. 단기 차 입	20,382,000,000
2. 단기 금융상품	▲1,065,983,458	3. 미 지 급	2,067,358,462
3. 매 도 가 능 증 권	3,064,300,283	4. 예 수	1,260,841,520
4. 대 손 증 당	887,416,797	5. 선 수	1,350,000
5. 대 손 증 당	▲8,674,187	6. 미 지 급 비 용	986,901
6. 대 손 증 당	38,235,498	7. 미 지 급 비 용	793,443,114
7. 대 손 증 당	330,352,022	8. 부 가 세 예 수	766,554,310
8. 대 손 증 당	294,785,051	II. 고 정 부 채	3,970,856,368
9. 대 손 증 당	35,566,971	1. 회 계 차 이	2,668,120,999
II. 고 정 자 산	55,305,446,438	2. 국 민 연 금 전	▲75,741,400
(1) 무 가 자 산	3,529,955,930	3. 예 수 보 중	1,378,476,769
1. 장 기 금융상품	35,000,000	부 채 총 계	43,480,324,216
2. 매 도 가 능 유 가 증 권	2,867,380,000		
3. 만 기 보 유 유 가 증 권	50,000	자 본	
4. 기 타 무 가 자 산	637,626,930	I. 자 본	18,000,000,000
5. 유 령 고 정 자 산	51,775,495,508	1. 보 통 자 본	18,000,000,000
6. 유 령 고 정 자 산	14,513,685,080	II. 이 익 잉 여 금	1,418,356,329
7. 권	48,366,056,852	1. 차 기 이 익 잉 여 금	1,418,356,329
8. 장 기 차 입	▲11,062,400,311	(당기순이익)	3,296,549,751
9. 차 입	681,047,513	자 본 총 계	19,418,356,329
10. 차 입	▲31,246,332		
11. 차 입	2,806,887		
12. 차 입	▲2,303,887		
13. 차 입	8,955,663,598		
14. 차 입	▲7,981,966,379		
15. 차 입	2,405,562,625		
16. 차 입	▲1,720,916,138		
자 산 총 계	62,898,680,545	부 채 와 자 본 총 계	62,898,680,545

2007년 3월 28일

주식회사 송원

대표이사 고경주

감사의견: 위 대차대조표를 포함한 제16기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영회계법인 대표이사 권승화

2007년 3월 28일

고려시멘트주식회사

대표이사 유창수

감사의견: 위 대차대조표를 포함한 제41기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양승우

제19기 결산공고

대차대조표

(2006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원)

계 정 과 목	금 액	계 정 과 목	금 액
I. 유 동 자 산	11,567,631,126	I. 유 동 부 채	9,792,150,720
(1) 현금 및 현금자산	11,215,627,977	1. 매 입 채 무	1,688,285,611
1. 현금 및 현금자산	1,064,234,951	2. 단기 차 입	6,806,830,000
2. 단기 금융상품	1,502,881,185	3. 미 지 급	315,812,075
3. 매 출 채 권	7,646,237,703	4. 선 수	101,121,546
4. 대 손 증 당	▲6,650,151	5. 예 수	55,187,380
5. 대 손 증 당	2,150,000	6. 부 가 가 치 세 예 수	-
6. 미 수 수 익	36,039,394	7. 미 지 급 비 용	560,616,434
7. 선 수	741,889,365	8. 미 지 급 인 세	56,886,841
8. 대 손 증 당	72,456,420	9. 유 동 성 장 기 부 채	197,500,000
9. 유 동 성 장 기 부 채	258,389,110	10. 이 익 잉 여 금	9,910,833
10. 이 익 잉 여 금	352,003,149	II. 고 정 부 채	8,075,848,693
1. 제 출	129,262,302	1. 산 주 인 수 권 조 직	1,447,281,000
2. 원	222,740,847	사 례 인 발 행 차	392,291,751
II. 고 정 자 산	12,248,648,216	신 주 인 수 권 조 직	▲275,470,416
(1) 무 가 자 산	1,110,675,063	2. 전 환 사 채	600,000,000
1. 장 기 금융상품	581,624,000	사 례 인 발 행 차	131,700,000
2. 장 기 차 입	-	전 환 권 조 직	▲220,557,642
3. 대 도 가 능 증 권	134,791,106	3. 장 기 차 입	6,200,804,000
4. 보	378,316,300	부 채 총 계	17,867,999,413
5. 이 익 잉 여 금	66,943,657		
6. 유 령 자 산	11,137,973,153	자 본	
(2) 유 령 자 산	1,963,217,905	I. 자 본	15,840,000,000
1. 지	4,332,139,800	1. 보 통	15,840,000,000
2. 장	▲519,318,194	II. 이 익 잉 여 금	2,467,005,752
3. 가	2,975,000	1. 이 익 잉 여 금	11,088,000
4. 가	▲2,082,500	2. 기 업 리 자 화 적 립	28,704,694
5. 가	8,113,089,607	3. 처 분 전 이 익 잉 여 금	2,427,213,058
6. 가	▲143,247,280	(당기순이익)	606,596,636
7. 가	▲2,390,155,578	전기: 595,773,328원	